

『세이요지조』(西洋事情) 원전의 일본어 번역에 대하여

김 연 미*

차례

- I. 들어가며
- II. 자료 소개
- III. 조사 방법 및 범위
- IV. 영어 원전의 문장 단위 번역에 대한 검토
- V. 마치면서

1. 들어가며

본고는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1852)과 이것의 번역문 『西洋事情』外編(1867)¹⁾을 대조하여, 메이지(明治, 1868-1912) 초기 일본인의 영어 번역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西洋事情』는 1867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가 펴낸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소개한 계몽서로써, 초판만 25만부²⁾ 팔려 이 책이 당시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西洋事情』는 서양 문화를 소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 책을 통하여 번역의 특성을 밝힌다는 것은 일본어 근대 번역어 연구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西洋事情』 일부분을 중역한 『西遊見聞』까지 발전시킨다면, 보다 넓은 범위에 걸친 서양·일본·한국간의 번역어의 영향 및 성립 과정까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근대 번역어의 비교 연구에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어의 근대

* 고려대학교 강사

어 성립 문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후쿠자와에 대한 연구는 『西洋事情』의 문체 및 문장의 특징에 관해서 기술하거나 후쿠자와의 사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동웨이흐(童偉鶴, 1998)³⁾는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外編 그리고 영어 원문을 중국어로 번역한 『佐治芻言』 세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완성의 논문으로 끝났으며, 지금 까지 연구해 왔던 것과 같이 세 작품을 통하여 사상 및 구성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는 영어 원문인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과 이를 번역한 『西洋事情』外編 두 저본의 비교를 통하여 후쿠자와의 번역 태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資料 紹介

본 연구의 자료는 영어 원전의 문장과 이의 번역서 『西洋事情』外編의 문장을 서로 비교·분석 한 것이다. 먼저 두 저본의 글의 구성 및 배경 등을 살펴보면, 『西洋事情』外編에서는 책의 구성과 『西洋事情』外編을 증보하게 된 이유를, 영어 원문에서는 이 글이 출판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1 『西洋事情』

『西洋事情』은 크게 初編·外編·二編으로 나누어지는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西洋事情』外編은 1867년 후쿠자와가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1852)을 번역한 것이며, 출판사는 慶應義塾出版局이다. 후쿠자와는 1866년에 『西洋事情』初編을 처음으로 발간하고 다음해 1867년 다시 外編(1867)을 내게 되었는데, 이를 「題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예1>

唯各國ノ史記政治等一端ノ科條ヲ知ラシムルノミニテ未ダ西洋普通ノ事情ヲ盡スニ足ラズ … 因テ今英人チャンブル氏所撰ノ經濟書ヲ譯シ傍ラ諸書ヲ鈔譯シ増補シテ

三冊トナシ題シテ西洋事情外編ト云フ

단지 각국의 사기 정치 등의 법령을 알려야 하는데 아직 서양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 그래서 지금 영국인 챔버스씨가 편 경제서를 번역하여 내가 여러 책으로 번역하여 증보하였는데 3권으로 하여 제목을 서양사정 외편이라 한다.

위의 예는 후쿠자와 자신이 『西洋事情』 初編에 대해 그다지 만족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챔버스의 경제서를 번역하여 다시 증보하게 되었는데, 이를 『西洋事情』 外編이라 칭하고 있다.⁴⁾

『西洋事情』 外編은 卷一·卷二·卷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부에 각 장마다 소제목(목차)이 달려 있다. 또한 총 53페이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卷마다 장 수를 나누어 본다면, 卷一에서는 11개(1장~11장)의 장이 있으며, 卷二는 3개(12장~14장), 卷三은 8개(15장~22장)의 제목이 부여되어 있다.

2.2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는 1852년 존 힐 바튼(Jone Hill Burton, 1809~81)이 쓴 경제서로써, 출판사는 윌리엄 앤 로버트 챔버스(William And Robert Chambers)이다. 영어 원문에 대해서는 단지 「題言」에 「英人チャンブル氏所撰の經濟書」이라든지, 「チャーンバル氏の經濟論」이라 기술되어 있었기에, 크레그(Craig, 1984)가 조사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챔버스의 ‘경제학’이라 불렀다.

바튼은 영어 원문(1852)이 간행되기 3년 전인 1849년에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Its Practical Application』을 간행하였다.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Its Practical Application』은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보다 장문이지만 다루는 범위는 좁다. 전자는 19세기 중엽에 넓게 이해되고 있었던 경제학을 주로 다루고 있었던 것에 반해, 후자는 오늘날의 정치학·사회학 또는 국제 관계론과 같은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저본에서 해석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윌리엄 앤 로버트 챔버스 출판사에 의해 교육 총서에 맞추어 바꾸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바튼은 이 약정에 의해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을 다시 출판하게 되었다.⁵⁾

2.3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 外編과의 비교

영어 원문과 이를 번역한 『西洋事情』 外編과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장의 머리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두 저본의 목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 外編의 각 장 제목 배열

	영어 원문	『西洋事情』 外編
卷一	INTRODUCTORY - SOCIAL ORGANISATION (1~3)	人間
	THE FAMILY CIRCLE(4~8)	家族
	INDIVIDUAL RIGHTS AND DUTIES(9~15)	人生ノ通義及ヒ其職分
	CIVILISATION(16~21)	世ノ文明開化
	EQUALITY AND INEQUALITY - DISTINCTIONS OF RANK(22~27)	貴賤貧富ノ別
	SOCIETY A COMPETITIVE SYSTEM(28~37)	世人相勸ミ相競フ事
	OBJECTIONS TO THE COMPETITIVE SYSTEM CONSIDERED(38~45)	*
	*	ワットノ略傳
	*	ステフェンソンノ略傳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46~55)	人民ノ各國ニ分ルコトヲ論ズ
	INTERCOURSE OF NATIONS WITH EACH OTHER(56~63)	各國交際
ORIGIN OF GOVERNMENT(64~72)	政府ノ本ヲ論ズ	
卷二	DIFFERENT KINDS OF GOVERNMENT(73~84)	政府ノ種類
	LAWS AND NATIONAL INSTITUTIONS(85~105)	國法及ヒ風俗
	GOVERNMENT FUNCTIONS AND MEASURES (106~141)	政府ノ職分
	THE EDUCATION OF THE PEOPLE(142~153)	人民ノ教育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 (154~167)	經濟ノ總論
	ORIGIN AND NATURE OF PROPERTY(168~178)	私有ノ本ヲ論ズ
	*	勤勞ニ別アリ功驗ニ異同アルヲ論ズ
卷三	*	發明ノ免許
	*	藏版ノ免許
	THE PROTECTION OF PROPERTY(179~188)	私有ヲ保護スル事
	PROTECTION OF THE PROFITS OR FRUITS OF PROPERTY(189~195) *단, 192번 단락은 『西洋事情』에서 해석되어 있지 않음	私有ノ利ヲ保護スル事

<표1>의 왼쪽 세로축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洋事情』 外編의 卷一, 卷二, 卷三을 기준으로 하여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 外編의 목차만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다. 괄호 안은 영어 원문에만 표시되어 있는 단락의 일련번호이다.⁶⁾

위와 같이, 卷一은 문명·사회에 관한 분야를 기술하고 있으며, 卷二는 정부·정치에 관해서, 卷三은 교육 및 경제 분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일치하지 않거나 생략되어 있는 장은 총 6장이 있었으며, 그 외는 모두가 영어 원문에 대하여 『西洋事情』 外編이 대응하고 있다. 卷一에서는 영어 원문 「OBJECTIONS TO THE COMPETITIVE SYSTEM CONSIDERED」(경쟁 제도에 대한 반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西洋事情』 外編에서는 「ワットノ略傳」(와트의 약전) 「ステフェンソンノ略傳」(스텝슨의 약전) 관해 기술하고 있다.

「OBJECTIONS TO THE COMPETITIVE SYSTEM CONSIDERED」(경쟁 제도에 대한 반대) 중에 대표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 보겠다.

<예2>⁷⁾

in short, that the present system of things is far *too favourable to the wealthy, the skilful, and the fortunate*; while it is *ruinous to the poor, the unskilful, and the unfortunatate*. (INDIVIDUAL RIGHTS AND DUTIES, 38)

간략히 말해, 그 현재 제도는 부유한 사람·기술 있는 사람·운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기회가 많은 반면, 가난한 자·기술이 없는 자·운이 없는 자에게는 파괴적이다.

위 예는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단점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근대 서양을 모델로 일반인에게 새로운 사상을 주입시키고자 하였는데 그 밑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자본주의적 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위의 장은 후쿠자와의 사상과 상반된 이론이었으므로, 이에 대신하여 「ワットノ略傳」, 「ステフェンソンノ略傳」을 기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卷三에서는 『西洋事情』 外編의 「勤勞ニ別アリ功驗ニ異同アルヲ論ズ」(노동에 따라 공헌이 동이함을 논함), 「發明ノ免許」(발명 특허권), 「藏版ノ免許」(저작권) 장에 대하여 영어 원문에 대응되는 장이 없다. 「勤勞ニ別アリ功驗ニ異同アルヲ論ズ」 「發明ノ免許」 「藏版ノ免許」장은 후쿠자와가 「ORIGIN AND NATURE OF PROPERTY」(사

유의 본질과 기원)의 장을 설명하는데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으로 덧붙인 장이다. 이와 같이 후쿠자와는 단순히 번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경 설명까지 덧붙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 방법 및 범위

본 항에서는 『西洋事情』의 저자 후쿠자와가 영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는지 두 저본의 문장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응되는 두 저본의 각 문장을 비교하기로 한다.

조사 방법은 두 저본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자 텍스트화하였고 한 문장씩 나열하였다. 영어 원문의 한 문장 기준은 마침표를 중심으로 두었으며, 『西洋事情』 外編은 구두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법적으로 「종지형」이 되는 곳에 중심을 두었다. 이러한 비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엑셀(Excel)」에서 다루었고, 대응하는 문장과 대응하지 않는 문장을 임의의 부호를 붙여 조사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 外編 두 저본을 센텐스 단위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각 문장이 일대일 대응의 경우와 아닌 경우를 살펴보고 『西洋事情』 外編의 번역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 원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각 장⁹⁾마다 소제목(목차)이 있으며, 다시 세분화하여 단락마다 처음부터 번호를 달고 있다. 원문은 총 154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36장·476단락으로 구성된다. 『西洋事情』 外編으로 번역된 부분은 영어 원문 63페이지까지이며 18장·196단락까지이다. 『西洋事情』 外編의 卷一·卷二·卷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卷一은 영어 원문의 1~10장, 卷二는 11~13장, 卷三은 14~18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범위는 두 저본이 대응되는 영어 원문의 18장까지와 『西洋事情』 外編으로 한다.

4. 영어 원전의 문장 단위 번역에 대한 검토

4.1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 外編의 대응 관계

영어 원문을 일어로 번역할 때 후쿠자와가 어느 정도 원전을 충실하게 번역을 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저본간의 대응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 원전과 『西洋事情』 外編간의 문장 대응 관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일대일 대응의 경우
- 2)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
 - (1) 일대다 대응의 경우
 - (2) 제로 대응의 경우
 - (3) 혼합형 대응의 경우

1)의 일대일 대응의 경우란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 外編이 한 문장씩 대응되는 경우를 뜻하며, 2)의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란 각각 한 문장씩 대응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또한 일대다 대응의 경우란 한 문장에 대하여 복수의 문장이 대응되는 경우를 뜻하며, 제로 대응의 경우란 어느 한 문장에 대하여 대응되는 문장이 없는 경우, 혼합형 대응의 경우는 각 저본의 두 문장 이상이 복수로 대응되는 경우를 뜻한다.

다음 표는 두 저본의 장 제목을 기준으로 하여 영어 원문 문장 수와 『西洋事情』 外編의 문장 수를 조사한 것이다. (‘차이’에서 +는 『西洋事情』 外編 문장 수가 많은 경우이며, -는 영어 원문 문장 수가 많은 경우이다. 아래의 숫자는 문장수이다.)

- 1) 영어 원문 - 951문장 (이하, 영어 원문 문장을 E.S라 칭함)
- 2) 『西洋事情』 外編 - 1204문장 (이하, 『西洋事情』 外編 문장을 J.S라 칭함)

〈표2〉 영어 원문 문장 수 · 『西洋事情』 外編의 문장 수

장 제목	문장수	영어 원문	『西洋事情』 外篇	총계	차이
INTRODUCTORY - SOCIAL ORGANISATION(1~3)	人間	12	15	27	+3
THE FAMILY CIRCLE(4~8)	家族	24	25	49	+1
INDIVIDUAL RIGHTS AND DUTIES (9~15)	人生ノ通義及 ビ其職分	45	54	99	+9
CIVILISATION(16~21)	世ノ文明開化	34	48	82	+14
EQUALITY AND INEQUALITY - DISTINCTIONS OF RANK (22~27)	貴賤貧富ノ別	21	26	47	+5
SOCIETY A COMPETITIVE SYSTEM (28~37)	世人相勸ミ相競 フ事	39	34	73	-5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46~55)	人民ノ各國ニ分 ルコトヲ論ズ	57	46	103	-10
INTERCOURSE OF NATIONS WITH EACH OTHER (56~63)	各國交際	46	48	94	+2
ORIGIN OF GOVERNMENT(64~72)	政府ノ本ヲ論ズ	45	59	104	+14
DIFFERENT KINDS OF GOVERNMENT (73~84)	政府ノ種類	66	72	138	+6
LAWS AND NATIONAL INSTITUTIONS (85~105)	國法及ヒ風俗	117	145	262	+28
GOVERNMENT FUNCTIONS AND MEASURES(106~141)	政府ノ職分	158	226	384	+68
THE EDUCATION OF THE PEOPLE (142~153)	人民ノ教育	64	92	156	+28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154~167)	經濟ノ總論	73	111	184	+38
ORIGIN AND NATURE OF PROPERTY (168~178)	私有ノ本ヲ論ズ	73	95	168	+22
THE PROTECTION OF PROPERTY (179~188)	私有ヲ保護 スル事	47	71	118	+24
PROTECTION OF THE PROFITS OR FRUITS OF PROPERTY(189~195) *단, 192번 단락은 『西洋事情』에서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에 제외하였음	私有ノ利ヲ保護 스ル事	30	37	67	+7
총계		951	1,204	2,155	+254

위의 표에서와 같이 「LAWS AND NATIONAL INSTITUTIONS」(법과 국가 제도)의 장과 「GOVERNMENT FUNCTIONS AND MEASURES」(정부 기능과 수단)의 장

문장 수가 영어 원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바튼은 법과 풍속 및 정부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西洋事情』 外編 또한 이에 대응되는 「國法及ヒ風俗」(국법 및 풍속)의 장과 「政府ノ職分」(정부의 직분)의 장 문장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후쿠자와도 이 두 장을 중요시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후쿠자와는 바튼의 사상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생략하여 다른 문장을 더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즉 『西洋事情』 外編에서 「國法及ヒ風俗」의 장과 「政府ノ職分」의 장의 문장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후쿠자와 또한 바튼의 입장과 같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영어 원문의 문장 수와 『西洋事情』 外編의 문장 수를 비교해 보겠다. 전체적으로 『西洋事情』 外編은 원문보다 254문장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SOCIETY A COMPETITIVE SYSTEM」(경쟁제도 사회)의 장과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국가에서 인류의 분담)의 장을 제외하면 『西洋事情』 外編의 문장 수가 더 많다. 이는 후쿠자와가 영어 원문에 대하여 긴 문장을 짧게 풀어써 씀으로써 보다 쉽고 간결하게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2 일대일 대응의 경우

‘일대일 대응의 경우’란 영어 원문 한 문장과 『西洋事情』 外編 한 문장이 대응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경우는 영어 문장·일본어 문장 각각 491문장이 나왔다. 단, 본고에서 말하는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은 두 저본의 문장 뜻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을 의역함으로써 뜻이 약간 달라진다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을 때는 일대일 대응이라고 정의한다.

다음 <예3>은 의미상 일치한 예이며, <예4>는 의역하거나 생략 또는 뜻을 부과한 예이다. 『西洋事情』 外編과 영어 원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예3>과 같은 예문은 아래의 한 문장을 제외하고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예4>와 같이 대체적으로 단어의 뜻을 바꾸거나 부가시켜서 나타내는 일대일 대응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3>

(1) Neither, in justice, can any one take away his personal freedom, so long as he

conducts himself properly and does not injure his neighbours.(INDIVIDUAL RIGHTS AND DUTIES, 9)

(2) 人トシテ其行ヒヲ正フシ他ノ妨ヲ爲スニ非ザレバ國法ニ於テモ其身ノ自由ヲ奪取ルコト能ハズ (人生ノ通義及ビ其職分, 05-b-07)

(1) 그가 바르게 행동하고 그의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정당하게 어느 누구도 그의 개인적인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2) 사람으로써 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다른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국법으로서도 그 신체(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예4>

(1) In that state the woman is the slave instead of the companion of her husband; the father has uncontrolled power over his child; and, generally, the strong tyrannise over and rob the weak. (CIVILISATION, 16)

(2) 情欲ヲ抑ユルコト能ハズ大ハ小ヲ犯シ強ハ弱ヲ虐シ配偶ノ婦人ヲ視ルコト奴婢ノ如ク父ノ子ヲ御スルニ無道ヲ以テスルモ之ヲ制スル者ナシ(世ノ文明開化, 10-b-03)

(1) 여자의 경우는 그녀 남편의 동료이기보다는 노동자이며, 아버지는 그의 아이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한 자는 약자를 압제하거나 빼앗는다.

(2) 정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범하고 강자는 약자를 학대하며 배우의 부인을 보기를 노비와 같이 아버지의 자식을 존중함에 無道로써 대하는 것도 이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예4>의 이탤릭체로 표시한 부분은 영어 원문에 없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뜻을 부가 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면을 찾아볼 수 있겠다.

4.3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란, 영어 원문 한 문장이 『西洋事情』 外編 한 문장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본고의 조사 결과 총 1174문장이 나왔다. 즉 어느 한 문장에 대하여 여러 문장으로 대응되는 경우와 대응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고에서

는 전자를 ‘일대다 대응의 경우’, 후자를 ‘제로 대응의 경우’라 정의하였다. 그밖에도 ‘혼합형 대응의 경우’가 있다. 이는 영어 원문 두 문장 이상과 『西洋事情』 外編 두 문장 이상이 복잡하게 얽혀서 대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선 일대다 대응의 경우를 살펴보고 하겠다.

4.3.1 일대다 대응의 경우

‘일대다 대응의 경우’란 어느 한 문장에 대하여 복수의 문장이 대응하는 것으로써, 영어 원문 한 문장에 대하여 『西洋事情』 外編의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대응되는 경우와 『西洋事情』 外編 한 문장에 대하여 영어 원문 여러 문장이 대응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대다 대응이 되는 영어 문장은 334문장, 일본어 문장은 516문장으로 총 850문장이며 용례수는 258용례이다. 또한 일대다 대응의 종류는 다섯 가지로, 일대이 대응¹⁰⁾ 대삼 대응·일대사 대응·일대오 대응·일대육 대응의 경우이다. 크게 일(E.S)대다(J.S) 대응의 경우와 다(E.S)대일(J.S) 대응의 경우로 나누어서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¹¹⁾ 이*에서 +는 ‘多(E.S)對一(J.S)’이 많은 경우이며, -는 ‘一(E.S)對多(J.S)’가 많은 경우이다.)

<표3> 일대다 대응의 경우

대응종류	합계	一(E.S)對多(J.S)		多(E.S)對一(J.S)		용례수의	용례수의
	대응 용례수	문장수	대응 용례수	문장수	합계	차이	
일대이 대응의 경우	146	438(146×3)	49	147(49×3)	195	-97	
일대삼 대응의 경우	40	160(40×4)	12	48(12×4)	52	-29	
일대사 대응의 경우	9	45(9×5)	1	5(1×5)	10	-8	
일대오 대응의 경우	0	0(0×6)	0	0(0×6)	0	0	
일대육 대응의 경우	1	7(1×7)	0	0(0×7)	1	-1	
총계	196	650	62	200	258	-135	

<표3>과 같이 ‘多(E.S)對一(J.S) 대응의 경우’ 보다 ‘一(E.S)對多(J.S) 대응의 경우’가 약 세 배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응의 종류 중 ‘일대이 대응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多(E.S)對一(J.S) 대응의 경우’와 ‘一(E.S)對多(J.S) 대응의 경우’의 용례수 차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후쿠자와는

긴 문장의 원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나누어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다음 예를 통하여 문장을 늘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5>

- (1) The men who had charge of the provisions were punished severely: many of them were hanged or shot; *but severity could not supply the legitimate and ever-present influence of trade.*(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 165)
- (2) 右ノ次第ヲ以テ兵糧ノ事ニ任ジタル者ハ嚴罰ヲ蒙リテ縊殺セラルハモノモアリ (經濟ノ總論, 20-b-04)
- (3) 射殺セラルハモノモアリシト雖ドモ遂ニ食料ノ過不及ヲ制シテ諸隊一樣ニ及ボスコト能ハザリシト云 (經濟ノ總論, 20-b-06)
- (4) 是即チ人爲ノ處置ハ以テ自然ノ商賣ニ及バザル所以ナリ(經濟ノ總論, 20-b-08)

- (1) 식량을 책임진 사람은 심하게 벌을 받았다.: 그들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거나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나 더한 것은 무역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향과 범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 위와 같이 병사의 식사에 담당하는 사람은 엄한 벌을 받아 목 졸라 죽음을 당한 것이다.
- (3) 사살된 적도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식량이 너무 부족하여 여러 군인들이 하나같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 (4) 이 즉 인위적인 처리는 자연적인 장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는 一(E.S)對 多(J.S) 대응의 경우로써, 영어 원문 한 문장이 세 문장으로 나누어져 번역되어 있다. 특히 (3)의 이텔릭체로 표시한 부분은 (1)의 예에 없는 부분으로써 살을 덧붙여서 자세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4)의 예는 (1)의 이텔릭체로 표시한 부분과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 원문의 의미와 약간 다르다. 다시 말해 (4)는 후쿠자와가 독자적으로 재해석하여 옮겨 놓은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一(E.S)對 多(J.S) 대응의 경우’에서는 원문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짧게 끊어서 풀어 쓰면서, 수식어로 의미를 덧붙이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후쿠자와의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 장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一(E.S)對 多(J.S) 대응이 多(E.S)對一(J.S) 대응보다 많다. 多(E.S)對一(J.S) 대응이 더 많은 경우는 「SOCIETY A COMPETITIVE SYSTEM」(경쟁 제도 사회)과 「INTERCOURSE OF NATIONS WITH EACH OTHER」(각 나라의 교류)의 두 장뿐이다. 즉, 영어 원문의 긴 한 문장을 짧게 나누어 풀어쓰는 경우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추려 한 문장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4.3.2 제로 대응의 경우

제로 대응이란, 두 저본의 문장이 서로 대응할 때 어느 한 문장에 대하여 대응되는 문장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본고의 제로 대응의 조사 결과 총 224문장이 나왔다. 또한 아래 <표4>에서 ‘영어 원문의 문장이 없는 경우’란, 영어 원문에 없는 문장이 『西洋事情』에 더해져 있는 것을 말하며, ‘『西洋事情』의 문장이 없는 경우’란 영어 원문에 대하여 『西洋事情』의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표4>는 영어 원문의 장을 기준으로 하여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차이’에서 ‘『西洋事情』의 문장이 없는 경우’가 ‘영어 원문의 문장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을 때는 +를 표시하였고, 반대의 경우는 -를 표시하였다.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4> 제로 대응의 경우

장 제목	합계	영어 원문의	『西洋事情』의	총계	차이
		문장이 없는 경우	문장이 없는 경우		
INTRODUCTORY - SOCIAL ORGANISATION(1~3)	人間	0	1	1	+1
The Family Circle(4~8)	家族	1	0	1	-1
INDIVIDUAL RIGHTS AND DUTIES (9~15)	人生ノ通義及ビ其職分	4	1	5	-3
CIVILISATION(16~21)	世ノ文明開化	8	2	10	-6
EQUALITY AND INEQUALITY - DISTINCTIONS OF RANK(22~27)	貴賤貧富ノ別	9	7	16	-2
SOCIETY A COMPETITIVE SYSTEM (28~37)	世人相勵ミ相競フ事	4	8	12	+4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46~55)	人民ノ各國ニ分ルコトヲ論ズ	6	14	20	+8
INTERCOURSE OF NATIONS WITH EACH OTHER(56~63)	各國交際	9	3	12	-6

ORIGIN OF GOVERNMENT(64~72)	政府ノ本ヲ論ズ	9	7	16	-2
DIFFERENT KINDS OF GOVERNMENT(73~84)	政府ノ種類	13	15	28	+2
LAWS AND NATIONAL INSTITUTIONS(85~105)	國法及ヒ風俗	15	3	18	-12
GOVERNMENT FUNCTIONS AND MEASURES(106~141)	政府ノ職分	26	3	29	-23
THE EDUCATION OF THE PEOPLE(142~153)	人民ノ教育	13	1	14	-12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154~167)	經濟ノ總論	16	1	17	-15
ORIGIN AND NATURE OF PROPERTY(168~178)	私有ノ本ヲ論ズ	7	7	14	0
THE PROTECTION OF PROPERTY(179~188)	私有ヲ保護スル事	7	2	9	-5
PROTECTION OF THE PROFITS OR FRUITS OF PROPERTY(189~195) * 단, 192번단락은 『西洋事情』에서 해석되어 있지 않기에 제외하였음	私有ノ利ヲ保護スル事	1	1	2	0
총계	148	76	224	-7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로 대응의 문장은 총 224문장이 있으며, 대부분이 ‘영어 원문의 문장이 없는 경우’이다. ‘차이’에서 +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西洋事情』의 문장이 없는 경우가 ‘영어 원문의 문장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로써, 「INTRODUCTORY - SOCIAL ORGANISATION」(소개 - 사회제도)장과 「SOCIETY A COMPETITIVE SYSTEM」(경쟁 제도 사회)장,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46~55)장, 「DIFFERENT KINDS OF GOVERNMENT」(정부의 종류)장의 네 장이다. 이 네 장은 영어 원문의 문장을 생략하여 해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문장이 없는 경우이다.

<예6>

- (1) If we wish to see the condition in which we would have been without these improvements, we can do so by examining the state of savage nations, as it will be found described in books of travels. (GOVERNMENT FUNCTIONS AND MEASURES, 112)
- (2) 其實際ヲ知ラント欲セバ諸家ノ著述セル記行ヲ讀テ草昧夷狄ノ風俗ヲ察ス可シ (政府ノ職分, 29-b-7)

(3) 我國ト雖ドモ古來事物ノ改革ナクバ其風俗ノ陋シキコト何ゾ夷狄ニ異ナルコト
アラン (政府ノ職分, 29-b-9)

- (1) 만약 우리가 이 향상 없이 살아 온 경우를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행의 책에 기술된 야만적인 나라의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
- (2) 그 실재를 보고자 한다면, 많은 전문가가 저술한 기행을 읽고 초매의 야만의 풍속을 관찰해라.
- (3)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예부터의 개혁이 없다면 그 풍속의 좁은 것이 무슨 야만과 틀릴 바가 있겠는가.

위 예에서 영어 원문 (1)과 『西洋事情』(2)는 일대일 대응의 경우이며, (3)은 영어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3)의 이탤릭체로 표시한 ‘我國(와카쿠니)’는 영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쿠자와의 자국인 일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일본인에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도 야만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부분으로써, 후쿠자와는 일본인들에게 문명개화를 시키고자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기술하였으리라 본다.

4.3.3 혼합형 대응의 경우

‘혼합형 대응의 경우’란, 영어 원문의 문장과 『西洋事情』外編의 문장이 한 문장씩 대응되지 않고, 서로 두 문장 이상의 문장이 대응되는 것을 말한다. 혼합형 대응의 경우는 총 99문장이 있었으며, 영어 문장이 50문장, 일본어 문장이 49문장이 있었다. 또한 용례수는 23용례이다. 그리고 ‘혼합형 대응의 경우’는 네 가지 종류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5> 혼합형 대응의 경우

대응 관계 \ 합계	영어 원문 및 『西洋事情』外編의 용례수	문장수 ¹⁾
二(E.S)對二(J.S) 대응의 경우	17	68(17×4)
二(E.S)對三(J.S) 대응의 경우	2	10(2×5)
三(E.S)對二(J.S) 대응의 경우	3	15(3×5)
三(E.S)對三(J.S) 대응의 경우	1	6(1×6)
총계	23	99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어 원문과 『西洋事情』 外編의 혼합형 대응 관계는 네 가지 경우이다. 이대이 대응의 경우와 이대삼 대응, 삼대이 대응, 삼대삼 대응의 경우로, 이 중에서 용례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대이 대응의 경우이며, 그 외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즉 ‘제로 대응의 경우’와 같이 후쿠자와가 영어 원문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대이 혼합형 대응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7>

- (1) *It contains upwards of two millions of inhabitants.*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 164)
- (2) These are calculated to consume daily 300 bullocks, 2126 sheep, 700 lambs, and a like number of calves and pigs; bread amounting to 175,350 quarter-loaves; 62 hundredweights of butter, 70 hundredweights of cheese, and 27,534 gallons of milk.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 164)
- (3) 龍動ノ人口二百萬有餘一日ニ費ス所ノ食物牛三百頭羊二千百二十六、羊仔<ヒツジコ>七百、牛仔、豚仔ノ數モ之ニ稱フ(經濟ノ總論, 17-a-06)
- (4) 蒸餅十七萬五千三百五十「クワルトル」(一「クワルトル」ハ四「ポント」ニ當ル)牛酪<ボトル>六千二百「ポント」乾牛酪<チース>七千「ポント」牛乳二萬七千五百三十四「ガルロン」(一「ガルロン」ハ二升四合ニ當ル)ナリ(經濟ノ總論, 17-a-08)

- (1) 200만 이상의 거주자가 있다.
- (2) 이것은 하루에 300마리의 수송아지 2,126마리의 양, 700마리의 어린양, 송아지와 돼지 등이 소비되는 수이다.; 빵의 양은 175,350코터 이다.; 버터의 6,200파운드, 치즈는 7,000파운드, 우유는 27,534갤런이다.
- (3) 런던의 인구 200만 여명이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물은 소 300마리, 양2126마리, 양 새끼 700마리, 송아지와 돼지 새끼의 수도 이에 해당된다.
- (4) 빵 175,350 코터(quarter)(코터는 4파운드에 해당한다.), 버터 6,200파운드, 치즈 7,000파운드, 우유 27,534갤런이다.(1갤런은 2리터에 해당한다.)

위 예문이 일대일 대응 관계가 된다면, (1)의 예문과 (3)의 예문이 대응될 것이며, (2)

의 예문은 (4)의 예문과 대응될 것이다. 그러나 예문(1)은 예문(3)의 이탤릭체로 표시한 부분과 대응을 하고 있으며, 예문(2)는 예문(3)의 뒷부분과 예문(4)와 대응하고 있다. 즉 한 문장의 번역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내용 전달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4)예문의 괄호 안은 후쿠자와가 부가 설명한 부분으로써, 당시 일본에 없었던 단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쿠자와는 근대어를 새롭게 조어해서 번역하였다기보다는 일상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두 저본에서 혼합형에 해당하는 용례수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혼합형 대응의 문장수가 가장 많은 장은 「LAWS AND NATIONAL INSTITUTIONS」(법과 나라 제도)장으로써 23문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 장의 총 문장수 384문장에 비하면 9%로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니다. 그 외에 각 장의 총 문장수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INTERCOURSE OF NATIONS WITH EACH OTHER」(각국의 교류)장과 「ORIGIN OF GOVERNMENT」(정부의 기원)장은 13%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혼합형 대응은 10%이하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혼합형 대응이 다른 대응 관계에 비해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영어 원문을 번역할 때 문장 간의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도 중요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4 분석 결과

이상 영어 원문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과 이를 번역한 『西洋事情』 外編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후쿠자와의 번역 특성을 알아보았다. 문장 단위에 따라 두 저본을 비교해 봄으로써, 『西洋事情』 外編에서 나타나는 근대 성격 및 저자의 번역 태도를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크게 1. 일대일 대응의 경우와 2.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로 나누었으며,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시 1)일대다 대응의 경우, 2) 제로 대응의 경우, 3) 혼합형 대응의 경우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각 대응 관계에 따라 두 저본의 문장수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표의 수는 문장수이다.)

<표6> 문장 단위에 따른 조사

대응관계 문장수	일대일 대응의 경우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				총합
		일대다 대응의 경우	제로 대응의 경우	혼합형 대응의 경우	합계	
영어 원본 문장수	491	334	76	50	460	951
『西洋事情』外編 문장수	491	516	148	49	713	1,204
합계	982	850	224	99	1,173	2,155

위의 표를 보는 바와 같이, ‘일대일 대응의 경우’는 982문장수가 나왔으며,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는 1,173문장수가 나왔다. 두 경우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일대일 대응의 경우’가 전체 문장수에 비해 절반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후쿠자와가 영어 원문을 번역할 때 일대일 대응이라는 충실한 번역보다는 전반적인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대일 대응이 아닌 경우’에서 영어 원본의 문장수는 460문장으로 나왔으며, 『西洋事情』外編의 문장수는 713문장으로 나왔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영어 원본 문장수보다 『西洋事情』外編의 문장수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즉 어려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평이한 일상어를 통하여 자세히 부과 설명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5. 마치면서

이상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과 이를 번역한 『西洋事情』外編과의 번역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 (1) 서양사정의 영어 원문과 번역문의 문장 대응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영어 문장의 충실한 번역보다는 일본어로서의 문맥 흐름을 더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영어 원문의 문장수와 『西洋事情』外編의 문장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西洋事情』의 문장수가 253개 더 많았다. 특히 일대다 대응과 제로 대응 경우가 이러한 결

과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쿠자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자르거나 부과적인 설명을 덧붙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는 기본적으로 영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면서 원전 문장이 너무 길거나 일본어 문법구조와 다른 것들은 과감히 문을 분할하여 일본인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아직 남겨진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 하나는 문장의 구성요소인 단어와 구의 대응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두 저본간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문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注】

- 1) 『西洋事情』初編 (1866(慶応2)刊) 『西洋事情』外編 (1867(慶応3)刊) 『西洋事情』二編 (1870(明治3)刊)
- 2) 進藤咲子(1975), 「『西洋事情』の文章」,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紀要』36,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
- 3) 童偉鶴/西川俊作(補筆)(1999), 「『西洋事情』と『佐治芻言』- パートン『經濟學』の翻譯書に關する比較研究-」, 『福澤諭吉年鑑』26, 福澤諭吉協會.
- 4) 飯田鼎(1979), 「『西洋事情』と福澤諭吉の政治經濟思想 - チェンバースの經濟書と福澤諭吉の思想形成 -」, 『福澤諭吉年鑑』6, 福澤諭吉協會.
- 5) Craig, A. M.(1984), "John Hill Burton and Fukuzawa Yukichi," Kindai Nihon Kenkyu.1
アルバート・M・クレイグ/西川俊作(作譯)(1984), 「ジョン・ヒル・バートンと福澤諭吉- 『西洋事情外編』の原著は誰が書いたか-」, 『福澤諭吉年鑑』11, 福澤諭吉協會.
- 6) 영어 원문 중 「PROTECTION OF THE PROFITS OR FRUITS OF PROPERTY」장과 『西洋事情』外編의 「私有ノ利ヲ保護スル事」장이 대응되나, 「PROTECTION OF THE PROFITS OR FRUITS OF PROPERTY」장중 192번 단락만 대응되는 일본어문이 없다.
- 7) 괄호안에서 왼쪽은 장 제목을 표시하고 있으며 오른쪽은 단락 번호를 표시하고 있다.
- 8) 「『西洋事情』と『佐治芻言』-파트ン『經濟學』の翻譯書に關する比較研究」중에 注에 있는 부분을 조금 소개한다.
: 스키야마(杉山,1986)는 후쿠자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資本主義の近代こそ實現されるべき価値であり、資本主義に對する反定立は現實の意味をもたなかった」 이와 반대로, 트레스콧(Trescott,1989)은 「大方の儒教主義者にとって國家社會主義は自由放任主義における情け容赦もない利己心よりも遙かに了解しやすく、また支持しやすいものであった。」라고 설명하고 있다.
- 9) 영어 원문에서는 한 개 이상의 단락이 모여 한 장을 이루고 있는데, 각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다. 여기서 장이란 단락의 집합을 뜻한다.
- 10) 여기서 일대이 대응이란, 영어 원문 한 문장에 대하여 『西洋事情』外編 두 문장이 대응하는 경우와 『西洋事情』外編 한 문장에 대하여 영어 원문 두 문장이 대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 11) ‘문장수’ 안에 괄호는 계산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원문 한 문장과 『西洋事情』外編 두 문장이 대응된다면 ‘일대이 대응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용례수는 한 용례가 되며 문장수는 세 문장이 된다.

【參考文獻】

- 임종원(2001),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연구 文明思想』, J&C.
- 알버트·M·크레이그/西川俊作(作譯)(1984), 「ジョン・ヒル・バートンと福澤諭吉-『西洋事情外編』の原著は誰が書いたか-」, 『福澤諭吉年鑑』11, 福澤諭吉協會.
- 飯田鼎(1979), 「『西洋事情』と福澤諭吉の政治經濟思想 - チェンバースの經濟書と福澤諭吉の思想形成-」, 『福澤諭吉年鑑』6, 福澤諭吉協會.
- 伊藤正雄(1979), 「『西洋事情』に福澤思想史上における重要性」 『福澤諭吉論考』, 吉川弘文館.
- 緒方福田(1976), 「緒方洪庵と福澤諭吉」, 『福澤諭吉年鑑』3, 福澤諭吉協會.
- 慶応義塾編(1958), 『福澤諭吉全集』第1卷, 岩波書店.
- 小泉仰(1991), 「福澤諭吉と教育勅語」, 『福澤諭吉年鑑』18, 福澤諭吉協會.
- 進藤咲子(1975), 「『西洋事情』の文章」,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紀要』36,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
- (1976), 「『西洋事情』の文章(2)」,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紀要』37,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
- (1997), 「福澤諭吉『西洋事情』-西洋文明の構造的把握-」 『國文學 解釋と鑑賞』62, 至文堂.
- 多田顯(1977), 「福澤諭吉と自由の概念」, 『福澤諭吉年鑑』4, 福澤諭吉協會.
- 千種義人(1993), 『福澤諭吉の社會思想 - その現代的意義』, 同文館出版株式會社.
- 童偉鶴/西川俊作(補筆)(1999), 「『西洋事情』と『佐治芻言』-バートン『經濟學』の翻譯書に關する比較研究-」, 『福澤諭吉年鑑』26, 福澤諭吉協會.
- 樋口辰雄(1984), 「福澤諭吉とマックス・ウェーバー- その學問的接点を求めて-」, 『福澤諭吉年鑑』11, 福澤諭吉協會.
- 福澤諭吉(1897), 『西洋事情』, 時事新報社.
- 村山紀昭(1995), 「福澤諭吉の西洋受容 - 『西洋事情』外編の「人間交際論」-」, 『北大法學論集』45卷2号, 北海道大學法學部.
- 森岡健二(1969), 『近代語の成立 - 明治期語彙編 -』, 明治書院.
- 柳父章(1980), 「福澤諭吉における“individual”の翻譯」 『文學』, 岩波書店.

李漢燮(1985), 「『西遊見聞』의 漢字語について-日本から入った語を中心に-, 『國語學』 141, 國語學會.

渡辺富美雄編(1993), 『日本語解釋活用事典』, ぎょうせい.

A P Cowie(1990),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Craig, A. M.(1984), "John Hill Burton and Fukuzawa Yukichi," Kindai Nihon Kenkyu.1.

John Hill Burton(1852),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 William and Robert Chambers.

Trescott, P. B.(1989), "Scottish Political Economy Comes to the Far East: The Burton-Chambers Political Economy and the Introduction of Western Economic Ideas into Japan and China," History of Political Economy.21(3)

『西洋事情』原典の日本語翻譯について

金 連 美

本論文は『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Private Instruction』(1852)と、この翻譯文『西洋事情』外編(1867)を對照比較し、文章單位の翻譯方法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福澤についての研究は、思想や『西洋事情』の文體の特徴に関するものが大部分であったため、日英間の文章の比較調査は、近代語の翻譯の研究において價值のあるものとする。

調査方法は二つの底本間の文章数を比較し、對應關係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方法を取ったが、まず全ての文章を電子テキスト化し、その文章が日本語と英語で「一対一」對應の場合と、それ以外の場合とを比較分析した。對應關係のパターンは次のように分類した。大きく「一対一の場合」と、「一対一ではない場合」を分け、「一対一」對應ではないものを、さらに「一対多」と「一対ゼロ」と「一対混合形」對應の形に分けた。

本調査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こと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なことが言える。

まず、英語の原典とこれに對する翻譯文『西洋事情』の文章の對應關係を調べてみた結果、「一対一」對應ではない文章が191例見られた。これは英文の忠實な翻譯というより、日本語としての文脈の流れを重要視し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次に英語の原文の文章数と『西洋事情』外編の文章数を比較したとき、『西洋事情』の文章数が253文多かった。特に「一対多」對應と「一対ゼロ」對應が多く見られたが、これは福澤が讀者の理解を助けるために、文章を簡潔にしたり、補足的な説明を付け加えた結果だと言える。

福澤は基本的に英語の原文を忠實に翻譯しながら、原典の文章があまりにも長かったり、日本語の文法構造とは違うものは思いきって文を切り、日本人の讀者が理解しやすく翻譯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ながら本論文はまだ残された課題が少なくない。その一つは文章の構成要素

である單語と句の對應關係を扱えなかつた點であり、もう一つは二つの底本間の内容に對する檢討がおろそかになつたという點である。これらの問題點は今後の課題としていくつもりである。